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 ‘맞손’

전북교육청, 전북대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학교 교육과정 지원·시민성 함양 미디어 리터러시 등 5개 분야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디지털미디어센터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분별력 있게 수용하는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학교 교육과정 지원 △미

디어 리터러시 교원 역량강화 △시민성 함양 미디어 리터러시 △자료개발 실천 연구 △미디어 리터러시 네트워크 지원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사회 미디어교육 전문가인 전주·익산·완주 미디어센터, 전주공동체라디오 등과 협력하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디어리터러시 연수를 이끄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광주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호남언론학회 등 전국 단위 미디어교

육 전문가·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전문성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최근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면서 딥페이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학교 급별 미디어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창의·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5층 회의실에서 학생 도박 예방 및 중독 치료를 위해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도박문제치유센터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왼쪽부터,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서거석 교육감, 손정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학생 도박 체계적·선제적 예방 가능해졌다

전북교육청, 원광대병원·전북대 도박문제치유센터와 ‘맞손’
도박 중독 학생 상담·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등 운영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9일 5층 회의실에서 학생 도박 예방 및 중독 치료를 위해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도박문제치유센터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서일영 원광대병원장, 손정민 전북대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한 삼급종합병원과의 협약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원광대병원은 △도박 중독 학생의 상담·진단·치료에 관한 관리 및 지원 △도박 중독 위기로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생 도박 문제 관련 증상기계획 수립 및 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전북도박문제치유센터는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학생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날 협약으로 학생 도박에 대한 체계적·선제적 예방이 가능해졌다.

삼급종합병원에 도박중독치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도박 중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전문의학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관련 예산 지급 등 학생 도박 예방 및 중독 치료를 위해 이들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도박 예방교육 및 중독 치료 서비스 제공 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6 수능 학습전략 설명회 22일 개최

전북교육청 등 공동주최
올바른 학습방법 등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고3 학생을 위한 2026년 수능 학습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2026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 방법을 안내해 불안감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BS 대표 강사인 최경일(국어)·김보라(영어)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고3 학생에게 필요한 학습 방법과 실천 전략을 소개한다.

특히 일반적인 학습법뿐만 아니라 국어와 영어 영역으로 구분해 학생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심층적인 학습전략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4시까지 국어·영어 영역 순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설명회는 EBS 누리집에 탑재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변화하는 입시제도에도 수능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며 “수능 지도 최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수능 준비를 위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오늘 사립학교
시설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사립학교 시설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사립학교 행정실장 및 시설담당자 250여 명이 참여하는 이날 교육은 사립학교 시설업무 전문성 향상 및 견실 시공에 목적을 뒀다.

교육은 2025년 사립학교 시설사업 신속 집행 및 집행 지침 안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설행정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사립학교 시설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정하고 청렴한 공사 진행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안홍일 시설과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립학교 시설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설사업의 견실시공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학생교육문화회관
반부패 청렴실천 자정 결의

군산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홍공숙)은 19일 2025년 반부패 청렴실천 자정 결의대회 및 ESG 교육·실천 선포식'을 실시했다.

이번 반부패 결의대회는 문화회관 전직원의 청렴의식 함양 및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반부패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실천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부당 요구 및 지시 금지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적극행정 △상호 존중 및 갑질 근절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0대 핵심과제인 ESG실천을 위한 선포식도 병행해 실시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에코인투와 '뉴업 New-UP(業) 디자인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왼쪽부터, 성은숙 에코인투 대표, 한동승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학생)

‘뉴업 New-UP(業) 디자인 과정’ 협력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에코인투와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미래융합대학은 ㈜에코인투(대표 성은숙)와 '뉴업 New-UP(業) 디자인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코인투는 AI 특허 기반 퇴직술루션 '화남하다'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 경영서비스 및 퇴직전략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허, 조직문화 및 역량 진단에서 맞춤형 퇴직 프로그램까지 기업과 퇴직자 모두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현재 재직 중인 재직자 및 특성화고(구 실업계고) 출신의 재직자와 만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능 성적이 필요 없는 특별 입학 전형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장인의 학습 환경을 고려해 토요일 하루 출석 수업 및 화요일과 목요일 야간 수업, 주중 온라인 수업 등 성인 친화적인 학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과 ㈜에코인투는 각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관리 강화에 성인 학습자의 경력 개발

과 성장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뉴업 New-UP(業) 디자인 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 과정 설계 및 운영 △'뉴업 New-UP(業) 디자인 과정' 운영을 위한 Re:PLAT 진단 시행 및 분석 △'뉴업 New-UP(業) 디자인 과정' 운영을 위한 커리큘럼 협의 및 정보 제공 등이다.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한동승 학장은 “(주)에코인투의 '뉴업 New-UP(業) 디자인 과정'을 통해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의 성인학습자 개인의 실리, 목표, 성향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개인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이 목표에 맞는 경력 개발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코인투 성은숙 대표는 “Re:PLAT 진단을 통해 학생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솔루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전주대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와 성향에 맞는 경력 설계와 안정적인 미래 준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지원단, 창업중심대학 사업 참여기업 모집

내일부터 내달 2일까지... 권역 내 창업기업 등 3개 유형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25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K-Startup(<https://www.k-startup.go.kr>) 및 전북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https://changup.j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기존 창업 지원 패키지와 달리, 주관기관이 창업기업의 성장 전 단계(예비·초기·도약)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발굴부터 스케일업까지 책임지는 완결형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부터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모집 유형은 △권역 내 창업기업 △지역 주력산업 연계형 △생애 최초 예비창업자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억원(평균 7,700만원)의 사업과 자금이 지원되며,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국경수 창업지원단장은 “권역 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창업기업과 가까운 곳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자신의 미래 설계하는 데 도움 됐기를”

우석대, 이동섭 국회의원·임만규 전 현대차공장장 초청 특강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19일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이동섭 국회의원장과 임만규 전 현대자동차 공장장의 초청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하일자리본부와 진로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날 특강은 2025년 전문가 초청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특강은 1부와 2부로 나뉘 진행됐으며, 태권도학과와 전기자동차공학부, 수소에너지공학과, 수소에너지고등학교 재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특강에서 이동섭 국회의장은 △스포츠 산업 동향 및 취업 전략 △태권도와 스포츠 산업의 글로벌 취업 전략 △국내외 스포츠 기관 및 단체 취업 기회 △스포츠 비즈니스 및 태권도 브랜드화 전략 등에 대해 소개하고,

태권도의 세계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진 2부 특강에서도 임만규 전 현대자동차 공장장은 △수소에너지 기반 자동차 산업 트렌드 △현대자동차 입사 및 커리어 전략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변화 및 수소차 기술 동향 등을 설명하면서, 향후 수소에너지 기반의 자동차 산업이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특강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생들이 더욱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생 의견, 대학 발전의 자산”

전북대, 양오봉 총장·학생들 참석 ‘소통간담회’ 열어
학업과 학교생활 균형·학습 환경 개선 등 의견 나뉘

전북대학교는 지난 18일 대학 인근 식당에서 학생들과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8일 대학 인근 식당에서 학생들과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학교 운영과 학생 복지 향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 구민기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자치기구 임원과 일반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대학가 인근 식당에서 열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학생과 총장이 함께 맥주잔을 기울이며 학교생활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학생들은 학업과 학교생활의 균형 문제부터 학습 환경 개선, 자율적 학생활동 지원 확대 등 평소 체감하는 다양한 문제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구민기 총학생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개선사항을 총장님께 직접 전달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학생들의 목소리는 대학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